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 2. 다시 교회로 (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 11:17-26)

이종윤 원로목사



나사로의 죽음으로 그의 누이들이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을 때에야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셨 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 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라”(17절)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21절)입 니다. 예수님이 오실 바에는 나흘 전에 오시어 서 죽기 전에 살려주실 일이지 이미 죽은 다음 에 무엇하러 오셨느냐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 망을 하는 모습입니다.

1. 시공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본문의 ‘여기’라는 말은 공간적인 장소를 의 미하며 ‘나흘’이란 말은 시간적인 개념을 말합 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당신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계셨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이미 나 흘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라고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시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확실히 믿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주님 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고 맙니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세계를 뛰어넘어야 됴도 불구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 의 논리와 이성의 한계 속에 예수님을 가두려 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은 마르다는 나가 서 영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은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라비는 죽었지만 무엇 이든지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이루실 줄 믿습 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 게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 니하였겠나이다”(21절) 라면서 예수님을 시간 과 공간 속에 묶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 고 있는 예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 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2. 사변적 신앙

사변적 신앙은 머리만 가지고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버리고 온몸을 움직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24절)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확 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마르다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진정으로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렸습니 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약속을 현실화하 는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3. 주님과 함께 있는 생명

마르다의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 면서도 어떻게 보면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합니 다. 이처럼 마르다의 믿음은 반신반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약한 신앙을 책망하 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 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 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 니하리니”(25-26절).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 며 생명이심을 마르다에게 가르치십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슬픔을 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으 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은 예 수님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르 다가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말하자 예수님 은 부활은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녀 앞에 있는 자신이 부활이고 또 생명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신 예수님이 계 신 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세상 끝날에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신자들도 육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기 독교의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썩어 없어 진 육신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뿐 아니라 영혼도 부활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영과 육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life giving spirit)을 주십니다. 우 리에게 생명 자체가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 으로, 영적인 입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실 때에 육체의 부 활과 영의 부활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은 대체로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예수님, 다시 말해서 말씀을 믿는 자는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다시 살지 않는다. 이 것은 영적 해석입니다.

둘째,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

셋째,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이 가운데 두 번째 해석을 맞는 것으 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산다는 말입니 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 합니다.



2023년도 교회봉사 지원서

다음 주일 2023년도 교회 각 부서를 섬길 봉사지원서가 주보 삽지로 배부된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섬길 부서를 정하기 바란다. 올해 섬겼던 부서를 계속 섬기게 되는 성도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교회 회복에 이어 코로나 비대면 상황도 점점 종식될 것을 기대하며 많은 부서에 새 봉사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교회 각 부서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부서를 비롯하여 같은 부서에서 5년 이상 장

기간 봉사(교회 분쟁 기간은 제외)를 하였던 성도들은 가능한 다른 부서로 옮겨 교회 여러 부서의 봉사 경험도 쌓고, 동시에 봉사자가 부족한 다른 부서도 더 힘을 낼 수 있게 도움을 주기를 권장하고 있다.

성도들 모두가 1인 1부서 봉사 원칙에 꼭 동참하여 할 일 많은 서울교회에 믿음의 동역자로서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 서울교회 사랑의 바자'의 열매들

우리 교회는 '2022 서울교회 사랑의 바자' 수익금의 일부를 성인 남성 노숙인 시설인 복지센터 '은평의 마을'에 생수 2리터짜리 1만 병을 세 차레에 걸쳐 기증하기로 하고 지난 27일(금) 1차로 3,300병을 보냈다.

또한 2022 사랑의 바자본부는 바자를 끝내고 남은 침구류 및 바자 물품들을 '탈북난민'

들에게 재 기부한 바 있다. 이후 '우리나눔', '예수제자교회', '더문화교회'가 이 물품들을 포함해서 열악한 환경에도 연합 바자회를 진행 하고 잘 마무리했다는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2022 서울교회 사랑의 바자'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수고한 모든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눔은 베풀수록 커집니다

살림!

서울교회 손달의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우리나눔 부대표 홍해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이틀간의 바자회를 잘 진행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물건들을 모두 즐겁게 둘러 보며 그 물품들을 잘 구매해 주어 필요한 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중국으로 팔려간 이복 여성들과 자녀들을 위한 생존에도 큰 도움이 되는 바자회였습니다.

큰 행사를 저희도 처음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남은 물품은 저희도 거저 받은 대로 어린이 전도협회 바자회에 거저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눔에 좋은 나눔 너무 감사합니다.

홍해 목사 올림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 100-034-868968
-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 김준현 권동영 김종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유동연 허성강 백승규 중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2022 성경암송대회

- 일시 : 11. 12(토) 일반부 본선
- 11. 13(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1장-8장

* 암송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 암송대회 신청 성도들은 11월 5일까지, 각 교구 간사들이나 옥종호 집사에게 신청하기 바란다.

2023 수험생 자녀를 위한 수능기도회

11월 17일(목), 웨스트민스터홀
오전 8시 30분 - 17시 45분

2023년도 수험생을 위한 수능기도회가 11월 17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진행된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란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41:13)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과 한국기독교



양정호 목사
(서울교회 협동목사
장신대 교수)

“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
”

‘올해로 505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이 한국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질문하기 전에, ‘과연 의미가 있기는 한 것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중세 교회를 비판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던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의 개혁정신이 과연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면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힘든 것이 한국기독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꾸려고 했던 로마 가톨릭교회의 잘못들 가운데 하나는 ‘사제들’을 ‘제사장’과 동일시하는 신학적인 오류 및 그것에서 비롯된 폐단이었는데, 이러한 오류가 되풀이되는 듯한 모습을 최근 총회에 올라온 어느 노회의 헌의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였고 사제들은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7성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교회와 사제에게 얽매이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성직자 임명하는 문제를 가지고 황제 하인리히 4세와 힘겨루기를 하다가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황제에게 수찬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권징인 수찬 정지가 교황의 힘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

던 수단으로 사용된 이유는 사제가 나누어주는 성만찬의 떡을 받아먹지 못하면 성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에 항복한 하인리히 4세는 엄동설한에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용서를 구하였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카르사의 굴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정점으로 교황권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성만찬의 떡을 받아 먹음으로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고 가르치는 것도 문제이거나, 그것을 나누어주는 사제들의 권한을 극대화시켜서 마치 사제들이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죄 선언을 하는 대제사장의 권한이 마치 교황의 권위인 것처럼 행동하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직에 대하여 루터는 ‘만인 제사장직’을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으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나 사제들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가며 오늘날 한국기독교에게 전할 말은 이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사제가 제사장이 아니듯, 개신교 목사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명자대회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특권, 기도



조서현 집사
(사명자대회
기도분과)

서울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사명자대회는 온 성도들이 50일간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2년 사명자대회 표어인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개인, 가정과 일터, 교회, 이웃과 사회, 선교지, 나라

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품고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던 기도제목과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신 사명을 깨닫고 무

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연습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지난 2년간 비대면 예배의 후유증으로 예배와 기도 생활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기도는 신앙심을 유지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정오시간의 3분 이상 집중기도, 개인별 시간을 정한 자율기도, 특별새벽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안입니다. 사명자대회가

이제 3주일이 지나고 4주間に 접어들습니다. 아직 참여가 여의치 않았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적극 참여하셔서 기도 생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 고난과 위기 앞에 하나님께 더욱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은 모른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비전과 문제에 대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2022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새가족부 수료

제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왼쪽부터 장정인 성도(2교구), 최현준 성도(2교구), 장민혁 성도(2교구)

최현준 성도 (2교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매 주마다 저를 교회로 겸허하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허락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아침에 감사드리고 평화로이 보낸 하루와 저녁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께서 흠뻑해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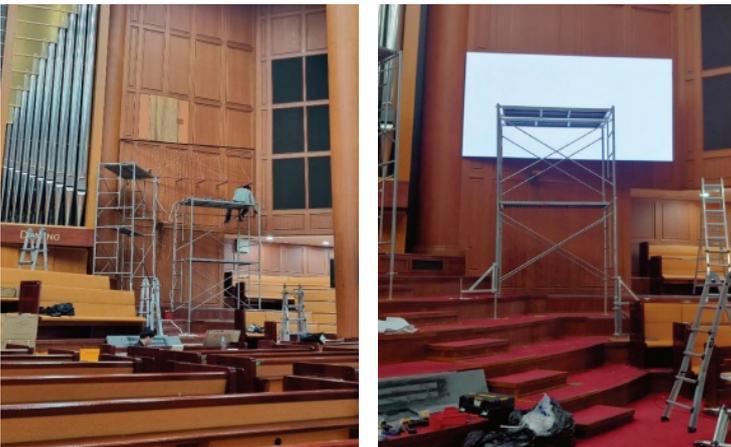
동정



■ 음악회 : 3교구 신모란 집사 서울오페라양상방 가족오페라 "빛아이 어둠아이" 11.10-11.13 노원어린이극장

■ 식사 제공 : 4교구 안성광 집사 고영숙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본당 LED 모니터 설치공사



지난 한 주 동안 좀 더 나은 예배 영상을 위해 2층 본당 LED 모니터 설치공사가 진행되었다.

공사는 LED 교체공사뿐만 아니라, 왼쪽 천장부터 벽면까지 부식되고 곰팡이 손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트지를 입히는 공사와 LED 모니터에 연결되는 영상장비 교체도 함께 진행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결실과 감사의 계절 11월에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 신령일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반사하게 하소서.
2. 코로나 재확산의 기세를 통제하여 주셔서 서울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와 선교지에서 복음의 확장이 힘차게 진행되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3. 고통과 절망이 있는 모든 곳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세계 여러 곳의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고, 이 땅은 복음화된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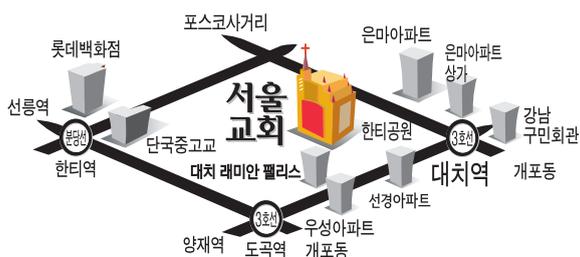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0월31일	월	요 4:46-6:15		겔 28-33	
11월1일	화	요 6:16-7:31		겔 34-40	
11월2일	수	요 7:32-8:59		겔 41-48	
11월3일	목	요 9-10		단 1-5	
11월4일	금	요 11-12		단 6-12	
11월5일	토	요 13:1-15:17		호 1-14	
11월6일	주일	요 15:18-18:40		을 1-3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본당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